

세계의 동상

글. 사진 허 용 선(여행 칼럼니스트)
yshur77@hanmail.net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이나 뜻 깊은 일들을 오래도록 빛내고 싶어 동상을 만든다. 동상의 종류도 다양하여 서 있는 모습인 입상, 앉아 있는 좌상, 가슴까지만 표현한 흉상 등이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구촌에는 많은 동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갖가지 사연이 숨어있어 흥미롭다.

“자유를 바라는 그대여, 가난에 찌들어 지친이여, 나에게로 오라. 고난에 처해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나는 황금의 문가에서 횃불을 들리라.” 이것은 미국 뉴욕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밑에 새겨진 글이다. 자유의 여신상 밑에 새겨진 이 말은 미국을 찾은 여로에 지친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미국 뉴욕 리버티 섬의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는 약 46m이나 여신상 밑의 받침대와 여신상의 몸체까지 합하면 92m나 된다. 이것은 40층 정도의 빌딩 높이이며 무게도 250t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동상이다.

여신상의 높이 치켜든 오른손엔 횃불, 왼손에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다. 횃불을 들고 있는 오른손은 지름 4m, 길이 13m에 달한다. 머리에 쓰고 있는 관에 뼈죽 솜은 7개의 뿔은 지구에 있는 7개의 바다, 횃불은 자유를 상징한다. 세계 속으로 자유가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모든 이의 꿈이 자유의 여신상에 실려 있다.

여신상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168개의 계단을 통해 머리 부분에 있는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다. 전망대에선 뉴욕 맨해튼의 모습이 잘 보인다.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리버티 섬에 관광객이 내리는 것을 통제하여 방문 당시 자유의 여신상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아쉽지만 포기해야만 했다. 자유의 여신상은 1884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가 미국에 기증한 것이다. 자유의 여신상은 너무 커서 한번에 보내지 못하고 1885년 5월, 214조각으로 나뉘어 프랑스로부터 뉴욕으로 보내져 조립 완공되었다.



▲미국 뉴욕항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언덕에 있는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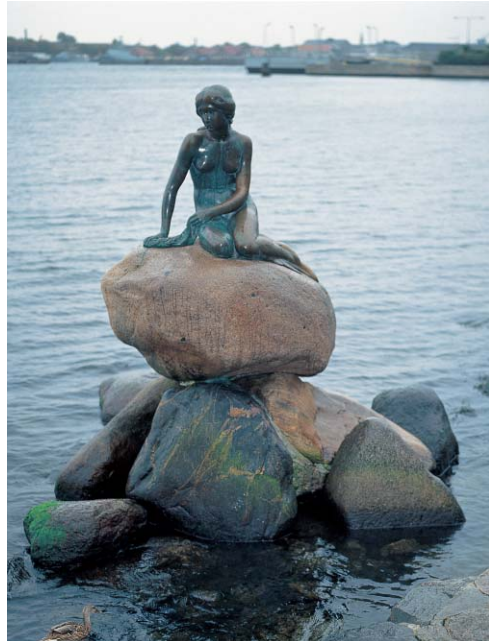
▲ 싱가포르에 있는 머라이언 동상.

브라질 코르코바도 언덕을 올라가면 절벽 꼭대기에 거대한 그리스도 상이 서있다. 높이 710m의 언덕에 높이 30m인 동상이니 밑에서 보면 740m나 되는 높다란 동상이다. 무게가 1,145t인데 그리스도가 좌우로 벌린 두 팔의 길이는 무려 28m나 되고 손바닥과 머리의 크기가 각 3m나 된다. 이 동상은 1931년에 브라질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척 인자하게 보인다.

이른 아침에는 햇빛을 받아 새하얀 십자가 모습 같고, 석양 무렵에는 조명을 받아 어둠속에서 신비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의 동상 밑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브라질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이 실감난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 교외에 있는 승리의 여신상.



▲덴마크에 있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해변의 인어공주상.

우크라이나의 기름진 흑토지대는 예로부터 곡식이 많이 수확되는 곳이다.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인 키예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침략에 대항해 싸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을 기리는 거대한 승리의 여신상이 있다. 키예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점령을 받았으며 2년 동안 온갖 시련을 다 겪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활기찬 나라다. 아시아의 공원이라고 불릴 만큼 도처에 공원이 많다. 머라이온 공원에 가면 바다를 향해 커다란 머라이온 상이 서 있다. 머라이온은 상반신은 사자이면서 하반신은 물고기인 상상의 동물이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이 순백색의 마라이온 상은 오고가는 선박들을 수호하는 듯 고층 빌딩들을 배경으로 하여 8m의 높이로 서 있다. 머라이온 동상은 얼굴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낮에는 능글한 수사자의 얼굴을 보여주다가 밤이 되면 조명을 받아 암사자의 얼굴을 드러낸다. 크기는 작지만 어떤 동상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인어공주 동상이나 벨기에의 오줌 누는 소년 동상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인어공주의 동상은 바로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인어공주는 얼굴은 어여쁜 공주지만 허리부터는 물고기다. 인어공주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 얘기가 동상 속에 깃들여 있다. 인어공주의 동상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랑겔리니 바닷가 바위 위에 호젓하게 있다. 높이는 불과 80cm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보려고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